

Nr. 2022 - 07-08

비크림



Licht und Salz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5,20-27ㄱ

형제 여러분,

20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21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24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람

편집부

바람이 불어 오는 곳 / 그 곳으로 가네 / 햇살이 눈부신 곳 / 그 곳으로 가네 /
바람에 내 몸 맡기고 / 그 곳으로 가네 /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 수평선
을 바라보며 / 햇살이 웃고 있는 곳 / 그 곳으로 가네 /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 곳
으로 가네...

故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국보다 더 파랗고 높은 독일 하늘 아래 바이에른의 푸르른 풍경을 보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이 곡이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감명을 받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무더위에 창문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간절한 시기. 독일 뿐만 아니라 온 유럽, 또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이상 기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맘 편히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몇 개월간 고대해 왔던 휴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기에, 올 여름은 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휴가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벌써 올 해의 시작보다 마무리에 더 가까워진 지금, 이때까지 우리 마음을 출렁이게 했던 파도 같은 생각들을 잠시 내려 놓고 마음 속 깊은 바람을 주님의 뜻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우리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인도해주실거라 믿고 인내하게 됩니다. 공동체 여러분은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 더운 여름을 곧 식혀주기를 고대하며, 올 여름 휴가도 주님의 영광속에서 축복 가득한 여름 보내시길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

바람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 공동체 설립 50주년의 기도
본당 50주년을 맞이하며 / 김창완 비오, 전영민 수산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교회음악 칼럼 / 여명진 크리스티나
뮌헨본당 첫영성체 어린이들 소감문 / 이아인 로즈마리,
송예원 크리스티나, 송예지 소피아



2022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기억

3,4월 부활

5,6월 변화

7,8월 바람

9,10월 만남

11,12월 안녕



2022년 7월 민첸본당 청년 미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요한 15,16 참조



공동체 설립 50주년의 기도

허광철 요셉 신부

기도와 사랑

청 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
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9)

신앙인의 바람(Wunsch)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된다.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은 “내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청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때, 마태오 복음 15장의 어느 어머니 이야기가 떠오른다. 마귀가 들린 딸을 고쳐 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목소리에 주님께서서는 거절하는 듯한 매몰찬 말씀을 하신다. 그럼에도 개가 되기를 마다 않으며 주님께 매달린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람(소망)이 여인의 믿음으로 실현되었는데, 주님을 움직인 결정적 믿음은 결국 딸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사랑이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향주삼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님,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딸을 낮게 해주십시오.” 여인의 자기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닮아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까지 받아들여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다 해도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결국 예수님의 겸손은 이 여인처럼 사랑 때문에 선택하신 겸손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이 다 밝혀진다. “기도의 시작과 마침은 겸손이요, 그 기도를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힘은 믿음이요,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다!”

50살, 뮌헨 가톨릭 한인공동체

어느새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뮌헨한인성당(Koreanische Katholische Gemeinde München)이



올해 50주년 금경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간략한 역사를 되짚어 본다.

1972년 2월 11일 바이에른 주 한인교우 지도신부로 이철우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뮌헨 가톨릭 한인공동체 설립. 매월 2회 학생기숙사 Johannes-Kolleg에서 한인미사 봉헌.

1985년 6월 동정성모회(추후 예수수도회로 명칭 변경)에서 전교수녀 파견 시작.

1986년 5월 München-Freising 대교구와 대구대교구 간의 협약으로 책임사목자 황용식 타대오 신부 파견 및 사제관(Stadelheimerstr. 45) 입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이주사목부의 의뢰로 Bayern 주 한인사목담당.

1988년 1월 Koreanische Katholische Mission으로 승격.

1988년 12월 17일 Regensburg 지역 공소 설립.

1990년 10월 공동체 Zentrum (Kreuzstr. 16) 입주 및 Allerheiligenkirche am Kreuz에서 미사시작(매주 토요일 15시).

1992년 6월 14일 Erlangen-Nürnberg 지역 공소 설립. 1993년 7월 4일 Eichstätt 지역 공소 설립.

1998년 8월 Würzburg 지역 공소 설립.

1999년 12월 Koreanischsprachige Katholische Mission으로 명칭 변경.

2010년 6월 공동체 Zentrum 이전 (Dachauerstr. 23) 및 사제관 이전 (Ridlerstr. 92)

2012년 Koreanische Katholische Gemeinde로 명칭 변경되어 뮌헨교구 Muttersprachige Seelsorge 소속의 분당 지위 부여.

2022년 2월 1일 제16대 허광철 요셉 신부 부임.

아주 간략한 우리 본당의 역사이다. 그동안 공소 포함 우리 공동체에 머문 모든 수많은 이들의 역사를 어찌 다 담을 수 있으랴. 수많은 사제, 수도자, 선한 신자들의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담긴 사연과 역사가 50이라는 숫자에 담겨있을까.

성경 안에서의 역사는 하느님의 역사, 즉 역사(歷史, History) 안에서 역사(役事, Work)하신 구원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역사는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의 결과인 것이다.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역사에 우리 역시 동참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창하게 축제를 벌이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기억되지 않는 공동체를 일군 모든 이에게 감사드리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떠난 모든 분께는 평안한 안식을, 어디에선

가 뉘헨과 독일을 그리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위로와 평화를,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용기와 사랑을 청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기도(요한 17장)는 먼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 '악에서 지켜 주소서', 세 번째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대신 하는 것이기에, 50살을 맞는 우리의 기도 역시 이 세가지 기도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기에 이 세가지의 기도가 실현되도록 '결코 사랑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0주년 금경축은 우리를 모두 사랑으로 다시금 초대한다. ■■■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기도합니다!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김창완 비오

먼저 원헌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지금까지의 여정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에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5년이면 반세기가 지나고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 요한네스콜렉 기숙사 맨 윗 층 카펠레에서 2주에 한번씩 보던 미사가 이제는 원헌 한인 천주교 본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미사를 드리는 크로이츠성당은 원헌 중심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합니다. 미사가 끝나고 우리가 모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쟈트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주교관회의에 신부님을 모시고 참석할 때마다 낮두껍게 주교관에 열심히 요구했던 생각이 나네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면서요.

이 모든 결과가 있기에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가꾸어 오신 신부님들, 수녀님들, 전 사목회장님들, 사목위원, 각 단체 성모회, 청년회, 성가대, 편집부, 대건회, 효주아네스회 등을 비롯하여 어느 단체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몫

을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 덕택으로 오늘날까지 숫자는 적지만 가족적인 좋은 분위기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여정도 유학생생활, 공부 마치고 직장생활, 정년까지 원헌이라는 도시와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자공학도로 연구소에서 디지털을 개발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날로그가 있어서 하루도 없으면 불편한 디지털이 생겼듯이 천주교 공동체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아날로그 세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밤번을 서고 병원에서 나와 늘 행사를 위해 음식장만을 도와주고 병원으로 바로 출근하시던 자매님들.....지금의 베스트파크에서 주교관 주체로 외국인공동체 원헌 행사가 있었을 때 좋은 장소를 맡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려 좋은 장소를 차지하여 제일 좋은 성과를 올리게 했던 형제자매님들...가톨릭켄타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외국인 공동체 부스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천주교 150주년을 알렸을 때 안내를 했던 형제자매님들.....이 일을 위해 저와 유학생생활을 하던 바빴던 분들 모두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 봉사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한인성당으로 되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밑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희생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시절에는 비록 물질은 모자랐지만 정신은 건전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든게 편리하고 빠르게, 사람과의 소통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는 세상, 거기에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요즘은 이게 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제가 요즈음 주일미사에 참석을 못해 신부님과 교우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님 그리고 고국에 귀향하신 교우 분들, 개인 사정으로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모두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사람의 나이로는 50세가 인생에서 가장 중간 나이이고, 이론과 실재를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50주년, 앞으로 100주년 기념까지 뮌헨 공동체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합시다.

저는 나이로는 아날로그 세대이지만 제 전공은 디지털개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상반되는 조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노인, 장년, 청년 세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조화로운 뮌헨 한인 성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영민 수산나


성 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40주년 기념행사를 엇그제 치른 것 같은데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 금경축을 맞이했습니다. 사십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나이로 말 할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오십이란 숫자는 불혹을 넘어 견고한 암석처럼 단단해서 여간해서 쓸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넘게 여러가지 활동이 중단되면서 자칫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뻔 한 위기도 있었지만 미사전례만은 꾸준히 집전 되었음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발족 당시 요한네스콜렉이라는 학생 기숙사 경당에서 미사가 집전 되었고 나눔의 장소도 그 곳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80년도 말에 지금의 Kreuzkirche에서 미사집전을 가졌고 나눔의 장소 또한 성당에서 50m 거리에 있는 한 좁은 공간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다가 지금의 넓은 Dachauer Str.로 이사오니 4층 꼭대기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곳에 비교하면 초가삼간에서 큰 대궐로 이사 온 듯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 합니다. 그 동안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공동체를 거쳐

갔고 그 안에서 많은 커플도 탄생했습니다. 저 자신은 본당이 발족하던 1972년 부터 소속되어 온 한 사람으로 이곳에 동지를 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금자탑을 이루게 해주신 신부님, 수녀님들, 숨은 뒤에서 공동체를 위해 노고하신 분들을 주님께선 한 분 한 분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기초적인 토대가 세워졌고 우리 공동체를 찬란하게 꽃 피우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 속담에 "Was glänzt ist nicht alles Gold"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도 중요합니다. 금경축의 경사를 맞는 우리들! 밖으로 빛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단 실속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속있는 공동체라 함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서로 불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큰 축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바람

전영민 수산나

6 | 상황을 뜻하는 유토피아 Utopia 는 그리스어로 (Ou) “아니다” 와 (Topos) “장소”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 실재하지 않는 곳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그 없는 곳을 찾아 헤매면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번 달 주제는 바람이다. 대기의 흐름으로 일어나는 바람과 어떤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도 바람인 것이다. 언뜻, 상이한 뜻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를테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것을 손 안에 쥐고 싶어 질때 뜻 밖에도 그 바람이 유리하게 불어 주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고교 1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이 떠오른다. 서정적이면서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소설의 내용은 그 때, 우리 소녀들의 가슴을 낭만으로 채우기에 충분했었다. 나 역시, 그 소설 속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 싶을 정도로 심취했고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아련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한 여름 밤, 종종씩 박혀 있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보면 그 때, 그 소설 속으로 빠져 드는 느낌이 들을 정도다.

한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이 그려져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오늘 날의 남녀간의 사랑과는 좀 멀리 느껴져 더더욱 사랑의 진실성에 빨려드는 느낌이다.

짜사랑의 대상자는 스테파네트라는 주인집 아가씨로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흠모하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것이다. 소설의 제목이 말 해주듯이 높은 위치에 있는 그저 바라는 볼 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양을 치며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사는 그 양치기에게 때 아닌 기회가 온 것이다. 말 그대로 유리한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두 주에 한 번씩 양식을 날라다 주는 아줌마는 친정에 갔고 함께 왔던 꼬마도 무슨 빌미론지 오지 않았다.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가 혼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밤이 온 것이다. 울상이 된 스테파네트에게 7월의 밤은 짧아서 곧 아침이 될 거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를 한다.

갓 스무살 청년의 애뜻한 사랑의 불꽃은 피가 끓어 오르도록 격렬했지만, 흔히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아가씨를 위해 가장 좋은 모피와 폭신한 침으로 잠자리를 마



련해 주고 자신은 울 밖에서 지새울 요량으로 모닥불 앞에 앉아 있는 그에게 모든 것이 생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가씨는 울 밖으로 나와 목동의 옆에 앉아 처음으로 가까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칠혹같은 밤, 하늘에 별들만 찬란히 빛나는 호젓한 곳, 목동은 별들의 이름과 별자리 어느 시각에 어느 별이 나타나는지를 인간사와 곁들여 흥미롭게 설명하는 사이에 잠이 든 아가씨의 곱슬머리가 그의 어깨에 귀엽게 얹혀져 있는 것이다.

별들이, 떠오르는 태양에 빛을 잃어 갈 때까지 꿈쩍도 않고 아가씨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그대로 있었다. 가장 아름

다운 별 하나가 길을 잃고 자기의 어깨에 기대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목동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얼마나 순수함의 극치인가. 맑고 지고한 사랑의 은은함이 그대로 우리들의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사랑의 기쁨으로 터질듯하다.

이 이야기는 두 말할 것 없이 자연이 가져다 준 바람이었고 절실한 소망이 이루어진 바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삶이나 생애에 깊은 열망으로 소망을 빌어 보는 것이다. 소망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다. 누구나 한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강렬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우리 삶의 원천이며 정점인 행복이란 것, 원하던 행복을 획득하면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잠시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들해지는 것이 번덕스런 행복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누군가가 그랬다. 행복이란 별 것이 아니다. 불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일 뿐이다.

참 행복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진리와 만나 그 것과 함께 하는 것만이 진짜 행복이요, 항구히 지속되는 행복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살펴보면 도처에 퍼져있는 것이다 마치 세잎 클로버 처럼...



서강대의 장영희 교수는 (1952-2009)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고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고 했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봐도 보이지 않는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지 못했다. 행복의 상징인 세잎 클로버는 일부러 찾지 않아도 지천에 얼마든지 퍼져있는 것이다.

독일풍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사냥꾼이 망원글라스를 통해서 아무리 토끼를 찾아 보아도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토끼들이 모두 사냥꾼 주위에 운집해 있는데도 하나도 눈에 들어

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멀리만 바라보며 찾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멀리에서만 찾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지만 가까이있는 행복도 멀리서만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재하지도 않는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는 허황된 사람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다.

Kleines Senfkorn Hoffnung,
mir umsonst geschenkt,
werde ich dich pflanzen,
dass du weiter wächst,
dass du wirst zum Baume,
der uns Schatten wirft,
Früchte trägst für alle,
alle die in Ängsten sind.

겨자씨 만한 작은 희망이
나에게 거저 생겼다

희망의 겨자씨를 심고 가꾸어서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희망 나무가 된 너는 우리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겠지

모두를 위해 결실을 맺고
두려움을 쫓아내겠지

Kleiner Funke Hoffnung,
mir umsonst geschenkt,
werde ich dich nähren,
dass du überspringst,

dass du wirst zur Flamme,
die uns leuchten kann,
Feuer schlägt in allen,
allen die im Finstern sind.

불씨 만한 작은 희망이
나에게 거저 생겼다

희망의 불씨를 정성껏 살려서
큰 햇불로 일구겠다

큰 햇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모두를 환히 비추면서

어둠속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희망의 빛을 밝혀 주리

Kleine Münze Hoffnung,
mir umsonst geschenkt,

werde ich dich teilen,
dass du Zinsen trägst,
dass du wirst zur Gabe,
die uns leben lässt,

Reichtum selbst für alle,
alle die in Armut sind.

동전만한 작은 희망이
나에게 거저 생겼다

그 작은 희망을 잘 나누어
이자로 불리우겠다

불러난 희망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궁핍하게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넉넉함을 누리리라

Kleines Wörtchen Hoffnung,
mir umsonst geschenkt,

werde ich dich singen,
dass dich jeder hört,

dass du wirst zum Liede,
das die Herzen füllt,

Freude weckt in allen, allen die in
Schmerzen sind.

작은 희망의 몇 마디 말,
거저 나에게 들려왔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노래 하리라

그 짧은 말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되리

희망의 노래는 고통속에 있는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하리

이 노래는 독일 성당에서 자주 부르는
성가로 Gotteslob 에는 실려있지 않다.
Pfr. Alois Albrecht께서 노랫 말을 만
드셨다. 전체적으로 7절인 것을 4절로
줄였고 바람이라는 주제에 잘 맞는 듯
하여 옮겨 보았다. 🎵



형제 여러분,

6절에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들이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들이니다.

7 절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

8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함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린토2서 9,6L-8

교회음악칼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여명진 크리스티나

여름이 깊어 갑니다.

싱싱한 초록이 눈부신 계절,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이 여름이 새삼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스웨덴의 작곡가 발데마 알렌(Waldemar Ahlen)은 이 푸르른 여름

풍경을 담은 곡 〈여름 시편〉을 작곡했습니다. 스웨덴의 시인 Carl David af Wirsén(1842-1912)의 시를 가사로 삼았는데, 2010년 6월 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결혼식 때도 불러질 만큼 스웨덴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여름 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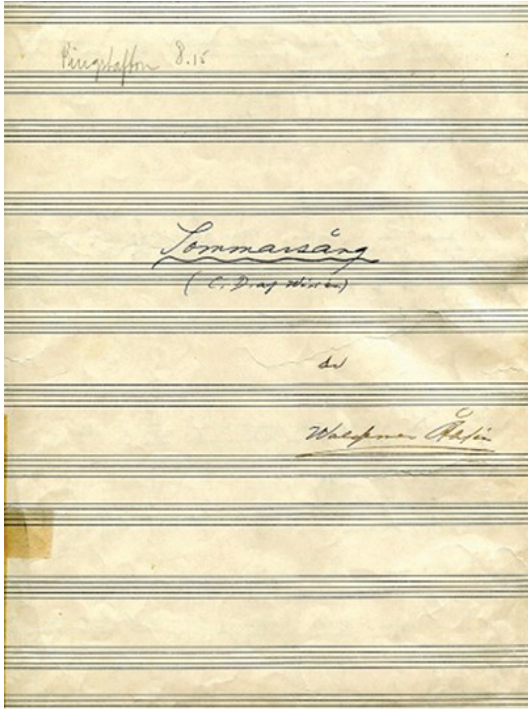
싱그럽게 푸르른 나무와 수풀 산비탈 골짜기 수놓고
온화한 미풍 숲결에 나뭇잎 살랑이니
햇살 아래 대지와 숲 깨어나 바람결에 너울대고
여름이 제자리를 찾아가네

경쾌한 초원의 노래, 아득한 숲의 속삭임
경외심 가득 담아 가만히 귀 기울이니
지저귀는 새소리 가득하고
향긋한 꽃내음 흠뻑려져 날리네

오 선하신 주님, 여름빛 춤사위 세상에 가득하니
이 계절, 축복 가득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당신 말씀 영원히 머무릅니다



좌-〈여름 시편〉 친필 악보 표지, 우-〈여름 시편〉 악보

친필 악보 표지를 보면 처음 이 노래를 작곡할 때는 '여름 노래'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후〈여름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가사의 마지막에는 이사야서 40장 8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여름빛은 주님의 축복이며 이 눈부신 찬란함도 언젠가 사그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무른다는 가사와 다정다감한 선율이 어우러져 절로 마음에 감사가 일게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150편의 노래를 담은 '찬양의 책'으로 성경을 통틀어 가장 긴 책입니다. 사실 150편의 시편에 찬양과 감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감사 외에도 슬픔, 두려

움, 분노, 의심, 원망 등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데, 어떠한 꾸밈과 숨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으며 건네는 기도가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싱그럽게 푸른 풀잎, 온화하게 불어오는 바람, 향긋한 꽃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반짝이는 햇살.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언제나 곁에 머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아름다운 여름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

기
님!
다
양
시
모
의
애
에
바
라
리
로
다
고
살
게
하
소
시
어

아
멘



첫 영성체 소감

뮌헨본당 첫영성체 어린이들 소감문

이아인 로즈마리, 송예원 크리스티나, 송예지 소피아



7월 10일 뮌헨 본당에서 귀여운 어린이들 세명의 첫영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녀님께 열심히 교리를 배우며 첫영성체 미사를 무사히 마친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아인 로즈마리

안녕하세요, Ingolstadt에서 살고 있는 13살 이아인입니다. 첫영성체를 할 수 있는 나이인 9살때 한국에서 폴란드로 이사를 왔습니다. 폴란드에는 한인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첫영성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독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독일어를 배우면서 동네 성당을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구들이 성체를 모시는 것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뭘한 한인 성당에서 첫영성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영성체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영성체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첫영성체 뒤에는 더 큰 책임감이 따라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잘 따라, 이제부터 미사에 더 책임감 있게 참석하고, 앞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친구로서 기도하면서 많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송예원 크리스티나

안녕하세요., 저는 송예원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녔지만 왜 성당에 가는지도 모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영성체 준비를 하면서 ‘왜 성당에 갈까?’ 부터 여러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고 제가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기뻐어요. 물론 아직도 모르는게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성당에도 열심히 다녀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송예지 소피아

안녕하세요, 저는 송예지 소피아입니다. 오늘 첫영성체를 하게 되서 많이 기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기뻐요. 그리고 앞으로 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12,1-3

형제 여러분,

- 1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 2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 3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 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미사 안내

민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어랑엔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뷔르쯔부르그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그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KHG Regensburg 경당

Sieboldstr. 1, 91052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 금 : 09:30 - 16:3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은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g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수연 아가타

김진영 암브로시오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